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제1826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1월 10일 (음력 12월 15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흐리고 한때 눈 -4/1℃	구름 많음 -5/3℃

News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②
- 올 겨울 혈액 가뭄 심각 ③
- 허정무호 새해 첫 훈련 ⑤

Books

- 세기의 독재자들 ⑩

Entertainment

- '가문의 영광' 마야 ⑥

- '佛여우' 보러 가자 ⑦

Wellbeing

- '안동 간고등어 성공기' ⑨

남도 새 명물로 떠오른 해남 대흥사 '유선관'

지난 7일 해남 대흥사 숲길에 있는 한옥 여관 '유선관' 앞 마당에서 주인 윤재영(55)씨가 여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百年 여관서 '웰빙 하룻밤'을

새소리… 물소리… 400년된 古宅 옛 향취·멋 오롯이

"이름은 여관 같은 데, 대흥사 별관인가?"

지난 7일 오후 해남 대흥사 숲길 끝자락에 있는 유선관(遊仙館) 문 앞에서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머뭇거렸다. 안으로 들어서길 망설이던 이들은 "이런 곳에서 하룻밤만 자 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부러움 섞인 말을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우선 유선관에서는 고풍스런 양반집을 연상시키는 기품이 배어난다. 유선관을 감싸고 있는 돌 담장이나, 1천 평 부지에 들어선 12칸짜리 전통 한옥 건물에선 대저택의 위엄마저 느껴진다.

여기에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긋함은 마치 고향집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유선관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산중 전통한옥 여관.

매일 새벽 3시면 지척 대흥사에서 새벽 예불 종소리가 고스란히 들리고,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의 소리가 단잠을 깨우는 곳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선이 노닐다 갈 정도로 주변 풍광도 빼어나다.

유선관은 400년 전통의 한옥구조를 지니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와 '천년학', '장군의 아들' 등이 촬영됐던 곳이기도 하다. 영화 서편제 중 양반집 잔치에서 고수 유봉(김명곤 분)이 춘향가의 어사출두 장면을 이곳에서 불렀다.

원래 대흥사를 찾는 신도나 수행승들의 객사로 쓰였던 유선관이 여관 영업을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인 191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기생 출신인 '장화'(기명·妓名)가 인수한 뒤 여관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전통 여관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한 때는 폐허로 방치되는 설움도 겪었다.

'서편제' '장군의 아들' 촬영지

TV 방영 후 전국 관광객 쇄도

유선관은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해남 출신 사업가 윤재영(55)씨를 만나면서 옛 모습을 되찾았다. 윤씨는 지난 2000년 6월 인수한 뒤 2년여 동안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7년째 운영 중이다.

윤씨는 "초등학교 봄 소풍 때 유선관을 처음으로 만났고, 어른이 되면 꼭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 보니 폐허로 방치된 모습을 보고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의 노력 덕분에 숙박객들은 전통 창호문의 객실과 뒷마당의 장독대, 400년생 느티나무 등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예전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됐다.

한국 여관의 전통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숙박객에 한해 정갈한 아침상이 나오고, 점심과 저녁은 하루 전에 예약하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감상하며 '징할' 정도로 푸짐한 남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음식의 깊은 맛은 김해김씨 종갓집 음식 솜씨를 지닌 아내 김귀순(54)씨의 손끝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KBS '해피선데이-1박 2일'을 통해 알려져 이달 말까지 예약이 꽉 차는 등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탓에 육체적 피로는 더하다.

윤씨는 "힘든 일도 많지만, 손님들이 이런 공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명품 여관으로 만들어내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활짝 웃었다. 문의 061-534-2959.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금리 0.5%P 또 파격 인하

기준금리 연 2.5%로 … 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에서 2.50%로 0.5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또 이성태 한은 총재는 부동산 시장 등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3개월만에 모두 2.75%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은은 금리를 11월28일 0.75%포인트, 12월11일 1.0%포인트 내리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실물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외환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다.

한은 금통위는 회의 직후 내놓은 발표문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한층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향후 성장의 하방 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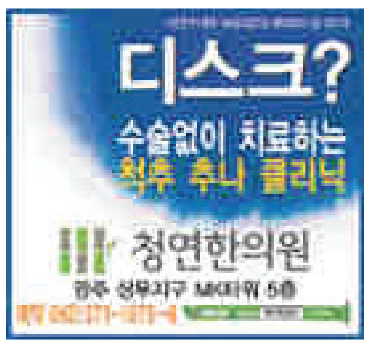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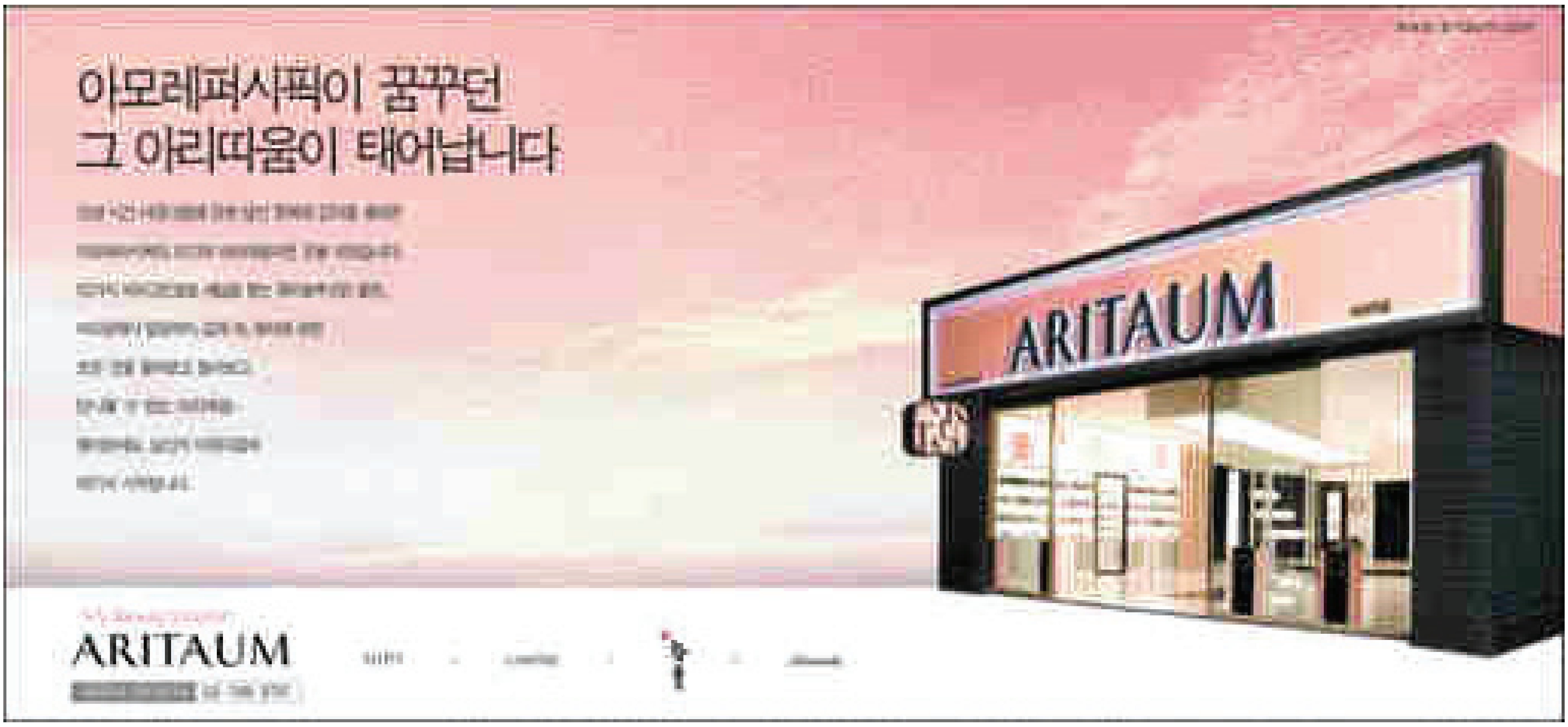
"예산 집행 1분기부터 집중해야"

이 대통령, 기초단체장 간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예산을 1월에 모두 배정한만큼 집행을 1분기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1분기, 2분기가 가장 어렵고 3, 4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치단체장들은 정당공천제 폐지, 일자리창출, 재정 조기집행,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신정훈 나주시장과 김휘동 안동시장은 영산강 등 4대 강 개발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은 유휴지를 활용한 축산사료 생산, 태양광 주택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